

## 장상훈(부림사건<sup>1</sup>) 피해자) 1차 구술

1. 구술자: 장상훈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8월 23일
5. 구술장소: 경기도 부천 소사구 베스티안병원 별관
6. 구술분량: 04분15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노무현 변호사의 거제 장승포성당 노동법 강연

구술자 : 팔십육(86)년 하반기였나? 팔십육(86)년 하반기인가 보다. 노무현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승포성당에 노동법 강연하러 가니 상훈 씨도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그날 약국 일찍 파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들어서 장승포성당에 갔더니 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했던 거예요. 그 성당에 거의 이삼백(200~300)명이 모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노동법 강연이 있었지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는 하진 못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강연보다도, 그건 조금 있었지만 결국 노동자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깨우쳐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의 말미에, 강의 다 끝나시고 나서 제가 있는 걸 보시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안됐을 거다. 혹시 의문이 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장상훈 씨라고 장승포에서 약국하고 있는데, 우당약국에 찾아가면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일곱 명의 노동자가 찾아왔어요. 약국으로.

면담자 : 그 다음날 바로?

구술자 : 예,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소주를 한 잔 했는데, 그 친구들이

---

1)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서 노동하고 있는 걸 갖다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질문,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대우조선에.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런 것들을 소주 먹으면서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좋다. 지금부터 내가 그걸 가르쳐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모임을 하나 하자[고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거제에 내려가서 노동자들을, 노동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소모임을 꾸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게 변호사님이 장승포성당에 오셔서 강의한 게 계기가 됐던 거지요.

거제에서 공식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의는 변호사님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팔십삼(83)년부터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당시 어찌되었건 저도 거제 사회를 변모시켜볼라고 시민운동의 틀도 잡아볼려고 하고 좀 더 약한 형태로 문화운동도 해볼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소위 거제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당장 인지를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인지를 못한 거 보면 아마 팔십육(86)년도에 장승포성당에서 강연회가 거제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네들 권익을 찾는 그런 강연으로서는 처음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거제 출생

1977.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입학

1981.10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2.02 집행유예로 출소

1983. 거제 장승포에 우당약국 개업

1989. 거제신문 창간

1995. 거제 시의원 당선

2002. 새천년민주당 경남 거제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열린우리당, 거제)

1981년 부림사건 2차 구속자가 되면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1982년 2월 부림사건 구속자 23명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1983년 고향 거제 장승포에 '우당약국'을 차렸다. 1986년 노무현 변호사의 거제 장승포성당 강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노동자들과 노동법 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한다. 1987년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노무현과 같이 현장을 지켰다. 1995년 거제 시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 대선 때는 거제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노무현을 도왔다.